

한·일 고대 사리장엄 비교연구

백제와 일본 飛鳥·白鳳期 자료를 중심으로

혜담(김보현) 일본 佛教大學校 연구원

목차

- I. 머리말
- II. 佛典에 보이는 사리봉안
- III. 백제와 고대 일본의 사리장엄구
 - 1. 백제의 사리장엄구와 출토유물
 - 2. 일본 고대사원의 관련유물
- IV. 관련 자료들의 비교 및 고찰
 - 1. 心礎와 舍利孔
 - 2. 사리용기와 매납구조
 - 3. 사리장엄구의 구성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백제의 사리장엄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미륵사지에서 있었던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성과들을 충분하게 반영코자 하였으며, 일본 飛鳥 白鳳期の 자료와 백제 사리장엄을 다양하게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釋尊의 다비를 전하는 ‘舍利八分’을 始原으로 하는 사리신앙은 佛敎東漸과 함께 전래되어 각각의 문화적 전통 및 지역성과 융합하면서 장엄양식을 발전시켜 나갔다. 하지만 사리안치를 위해 중첩식 사리용기를 마련하고 탑을 세워 공양을 올리는 등의 기본 형식만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이것은 『열반경』과 같은 경전의 내용을 의식하고 지키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하였으며, 백제와 일본의 경우에서도 이 같은 내용은 예외 없이 확인된다.

사리가 직접적으로 안치되는 사리용기와 사리를 장엄하기 위해 갖추어지는 사리공양품들은 모두 사리장엄구의 범주에 속하며, 여러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이들은 대체로 동일한 공간 내에 안치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로 인하여 사리용기와 사리공양품은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기 쉬우나, 조사결과 이들은 그 성격과 의미를 각기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리용기는 매납 방법이나 재질의 이용 등에서 경전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에서도 중국·백제·일본의 경우에는 한역본 경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반면 사리공양품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지역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구성품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일부 유물들에서는 완성품 자체보다는 그 재료의

구비를 목적으로 공양품을 조성한 흔적이 확인되기도 한다. 사리공양품의 매납과 고분 부장품과의 영향 관계를 감안할 때, 백제의 경우 追善 대상이나 발원자의 유품 등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은 武具·馬具類 등과 같이 고분 부장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장엄구 이외에도, 사리공양품 매납에 미친 고분 부장품습의 영향을 각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었다.

I. 머리말

사리는 불상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초기불교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 대상으로, 다양한 장엄 방법을 통해 봉안이 이루어졌다. 특히, 사리가 봉안되는 사리탑은 고대 인도의 스투파(Stūpa)에서 시작되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목조, 석조, 벽돌(煉瓦) 등 그 지역의 건축양식을 특색으로 건립되었다. 사리를 안치하는 위치는, 처음에 塔下의 지면이나 최상층의 상륜부와 같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매납 되었으나, 점차 탑 내부의 可視의 위치로 옮겨져 갔다. 이는, 문헌에서 佛身 그 자체로 여겨지던 사리가 점차 사람들의 至誠에 의해 感得·增減하는 설화적 기술이나 그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 늘어나면서, 釋尊을 추모하고 기리는 당초의 감각에서 벗어나 신앙적 의미가 심화하는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과는 관련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리장엄 연구는 비교적 현존자료가 풍부한 신

라시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백제의 사리장엄은 사료·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백제의 사리신앙에 관한 모습들은 주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통해 단편들을 엿볼 수 있지만, 그 세부적인 정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일본에 전해지는 문헌 및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는 연구와 함께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미륵사지 등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성과에 힘입어¹⁾, 지금까지 많은 공백에 가려있던 백제 사리장엄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²⁾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적들의 성격을 포함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료들과의 관련이나 문헌자료 중심의 해석에 치우친 나머지 자료 본연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본 논문은 한·일 고대 사리장엄, 특히 백제와 일본 飛鳥·白鳳期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1) 이와 관련한 주요 발굴성과에는 ‘능산리사지 창왕명사리감 출토(1995)’ ‘왕흥사지 사리용기 一式 및 공양품 출토(2007)’ ‘미륵사지 사리봉영기 및 사리장엄구 一式 발견(2009)’이 있으며, 근년의 연구성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양은경 2008 「中國 佛教寺刹의 검토를 통해 본 百濟 泗泚期 佛教寺刹의 諸問題」 『백제연구』 50 충남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김춘호 2010 「백제 목탑에 관한 일고찰-그 사례와 특징」 『한국사상과문화』 55 한국사상문화학회, 한정호 2013 「백제 불탑 사리장엄의 조사현황과 특징」 『백제사찰연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경미 2014 「彌勒寺址 石塔 舍利莊嚴具의 構成과 意義」 『백제연구』 59 충남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이 외에도 鈴木靖民 2008 「百濟王興寺의 舍利容器·莊嚴具と飛鳥寺-飛鳥文化の源流」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36 大和書房, 佐川正敏 2010 「王興寺と飛鳥寺の伽藍配置·木塔心礎配置·舍利奉安研究の系譜」 『古代東アジアの仏教と王権-王興寺から飛鳥寺へ』 勉誠出版과 같은 일본의 연구들도 주목된다.

2) 특히, 백제 사원유적에서 이루어진 조사 성과들은 지금까지 과제로 남겨져 있던 백제와 주변지역간의 교류와 영향관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도 큰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불교의례로써의 사리장엄을 이해하고자 사리신앙의 사상적 원류라 할 수 있는 初期佛典 속 사리봉안과 그 의미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백제 사리장엄 유적들을 조사하여 그 특징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계속해서 백제와 일본 현존 자료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지역 사리신앙과 장엄의 변천 과정과 그 배경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계기로 향후 한일 고대 양국의 사리신앙 전반에 관계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佛典에 보이는 사리봉안

사리는 ‘遺骨’ 혹은 ‘遺體’를 뜻하는 범어 사리라(Sarira)의 음역으로 본래 死者의 몸을 화장한 뒤 남은 뼈나 재를 포함하는 의미였다. 이후 불교도들이 다비를 치른 釋尊의 유체와 재를 佛身을 대신하여 예배 드리면서부터 사리는 釋尊의 유골을 가리키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기원전 5세기 중인도 쿠시나가라(Kuśinagara)에서 입멸한 釋尊의 다비와 사리공양에 대해서는, 이른바 ‘舍利八分’ 혹은 ‘分舍利’라 일컬어지는 佛典 속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시불교시대에 해당하는 당시의 인도에는 관습상의 이유로 불상을 만들지 않고³⁾, 불탑을 비롯한 佛足, 寶座, 法輪 등이 조형화되어 釋尊을 대신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불탑에 사리를 봉안하

3) 釋尊이 出世했던 시기의 인도에는 바라문교를 비롯 六師外道 등 여러 종교가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神像을 만들고 받들어 모시는 관습은 찾아볼 수 없고, 이러한 영향이 당시의 불교에도 미치고 있었으리라 여겨지고 있다.

고 공양 올리는 사리신앙은 가장 일반적인 신앙형태였으며, 잘 알려진 예로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왕대에 이루어진 8만4천基의 사리탑 건립을 들 수 있다. 이후로도 사리탑은 인도 서북부의 간다라와 중인도 마투라 지방에서 불상이 출현하는 1세기경까지 불교를 대표하는 신앙의 대상이었다.

釋尊의 열반을 다루고 있는 『대반열반경』은 사리신앙 및 장엄을 검토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문헌으로, 크게 ‘원시경전의 부류에 속하는 것’과 ‘대승경전의 부류에 속하는 것’의 두 종류 경전이 존재한다. 대승경전이 부처의 본질을 法身으로 보고 ‘一切衆生悉有佛性’의 대승불교사상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는데 비해, 팔리어대장경 長部『Digha-nikāya』第16經「Mahā-parinibbāna-suttanta」에 해당하는 원시경전은 팔리어 아함부(Nikāya)중에서 유일하게 석존의 事蹟을 연대기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왕사성(Rājagaha)을 출발하여 쿠시나가라(Kuśinagara)에서 입멸에 든 석존 만년의 행장은 물론 입멸후의 다비절차,사리의 분배, 사리탑의 건립과 공양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상세히 전하고 있어 초기불교의 事蹟을 살피는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주요 한역본으로는 法顯의 『大般涅槃經』⁴⁾을 비롯하여 『遊行經』⁵⁾, 『佛般泥洹經』⁶⁾, 『般泥洹經』⁷⁾등이 전해지며, 현대역본으로는 『한글대장경』 아함부에 수록된 「대반열반경」⁸⁾과 『南傳大藏經』의 「大般涅槃經」⁹⁾등이 대표적이다.

4) 『大正新脩大藏經』 卷1「阿含部」No.7(191~207)

5) 『大正新脩大藏經』 卷1「阿含部」No.1(11~30)

6) 『大正新脩大藏經』 卷1「阿含部」No.5(160~175)

7) 『大正新脩大藏經』 卷1「阿含部」No.6(176~191)

8) 東國譯經院 1973 『한글대장경』 卷5「아함부」

9)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1970 『南傳大藏經』 卷7「大般涅槃經」 16

全6誦品으로 이루어진 열반경에서 사리장엄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5~6誦品으로, 여기서 釋尊은 제자 아난(Ānanda, 阿難陀)에게 부처의 다비 철차와 공덕을 설하고 있다.¹⁰⁾ 그 요지는 ‘부처의 葬儀와 사리공양은 세속 사람들에게 맡기고 불제자(수행승)들은 스스로의 수행에 전념하여 最高善에 힘쓸 것’과 ‘부처의 유체는 크샤트리아(刹帝利)· 바라문· 거사에게 모시도록 하여, 전륜성왕의 사리수습법(葬法)에 준하여 치를 것’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 된다.¹¹⁾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전륜성왕(Cakkavatti) 사리수습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처음에, 遺體를 깨끗한 布木과 새로운 麻布로 번갈아 5백겹으로 감싼다¹²⁾
- 다음으로, 두 가지 천으로 감싼 遺體를 철로 만든 油槨에 넣는다
- 다음으로, 遺體를 넣은 油槨을 또 다른 鐵槨으로 덮는다
- 다음으로, 향료를 먹인 장작을 쌓아 (遺體를)화장한다
- 끝으로, 사거리에 스투파를 세우고 사리에 공양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점으로는, 철로 만든 관(槨)이 이용되고 있는 것과 스투파를 세워 사리를 봉안하고 공양을 올리는 모습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다음의 한역본 내용을 함께 참조해 보

10) 이하의 요약정리는 팔리어원전을 底本으로 하는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1970 『南傳大藏經』을 참고로 함.

11) 第5誦品10~11節

12) 中村(1984)에 의하면, 이 두가지 천을 부드러운 베나레스(Benares)산 목포과 기름이 잘 먹고 풀어지기 쉬운 무명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보면 두 가지 천의 사용은 장례기간 유해의 보존과 다비시 불에 잘 타는 것이 고려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면 고대 사리장엄과의 연관성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전략)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아 나의 몸(遺體)에 공양 올리려거든 전륜성왕의 공양하는 법에 의하도록 하라. (중략) 전륜성왕의 공양법이란, 새로운 깨끗한 면(綿)과 울이 촘촘한 포목(細麩)으로 그 몸을 감싼다. 이렇게 하길 천겹에 이르면, 금관 속에 넣는다. 다시 은관을 만들어 금관으로 담고, 다시 동관을 만들어 은관으로 담고, 다시 철관을 만들어 동관으로 담는다. 그러한 뒤에 뛰어난 향유를 모아 붓는다. 또 다시 관의 안쪽에 여러 향과 꽃으로 뿌려준다. 많은伎樂을 만들어 노래하며 계송으로 찬탄한다. 그러한 뒤에 뚜껑을 내린다. 큰 보물 수레를 만들어 지극히 높고 넓게 되도록 한다. (수레의)난간은 欄楯으로 덮고, 뛰어난 물건들(衆妙)로 장엄하여, (수레)위에 관을 싣는다. 한편, 도성 안에 다비장(闍維處)을 만들고, 사방을 쓸고 닦아 매우 청정하게 한다. 좋은 전단향과 여러 이름난 향을 모아서 크게 쌓아 올린다. 다시 (향을)쌓아놓은 위에 비단(繪)과 포목(麩)을 깔아 펴서, 커다란 보석을 수놓은 장막으로 그 위를 덮는다. 그런 뒤에, (수레를)메고 운반하여 다비장(闍維處)에 이르면, 燒香, 散華, 伎樂으로 공양 올린다. (중략) 다비가 끝나는 때에, 사리(遺骨)를 수습해 모아서 금병 안에 넣는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사리탑(兜婆)을 세우고, 찰주로 표시하고, 비단(繪), 번(幡), 천개(蓋)를 걸어 장엄한다. 여러 대중들은 응당히 오래도록, 날마다 향을 사르고(燒香), 꽃을 뿌리며(散華), 갖가지 공양을 올린다. (후략)¹³⁾

法顯譯『大般涅槃經』中

위와 같이 한역본에는 금, 은, 동, 철로 이루어진 각종의 관은 물론, 향화, 전단향, 幡蓋(幡과 天蓋) 등의 장엄구류, 여기에 燒香, 散華, 伎

13) 『大正新脩大藏經』卷1「阿舍部」No.7(199項下~200項上)

樂 등 의례까지도 언급되고 있어, 한층 상세해진 사리장엄법을 전하고 있다. 특히, 금관-은관-동관-철관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유체의 納棺을 비롯하여 다비를 치른 뒤 사리를 금병에 넣는 것 등은, 오늘날 여러 사료와 자료들을 통해 확인되는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결국, 열반경에서 설하고 있는 ‘전륜성왕 사리수습법’은 후대의 사리장엄에 모범이 되어왔으며,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한역본에 의해 보다 세밀해진 장의법이 사리용기의 소재를 포함한 사리봉안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열반경에는 사리장엄의 대미라 할 수 있는 사리탑(스투파)의 건립과 공양에 관한 내용도 서술되어 있다. 다비 후에 이루어진 사리의 분배와 공양을 적고 있는 第6誦品 22~28節에 의하면, 다비에 직접 관여한 쿠시나가라 말라족을 비롯한 여덟 나라의 종족들은 저마다 스투파를 세워 공양할 수 있도록 사리를 요구하였다. 특히, 釋尊의 친족으로서 사리의 공양과 분배를 청한 샤카족을 제외한 나머지 종족들이 내놓은 사리요청의 주된 명분은 ‘본래 釋尊은 크샤트리아 출신으로, 우리들도 같은 신분을 지니고 있기에 釋尊의 사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釋尊의 신분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기리며 공경하려는 것은, 당시의 葬儀나 스투파 건립에 지배층과 같은 특정계급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려는 사상이 근저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한편, 불교 내에서도 사회적 관습이나 환경을 외면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사리분배를 둘러싼

14) 多重의 중첩식 사리용기 사용은 인도나 서역의 자료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1~6重의 다양한 중첩방식과 금속류 이외에도 토기, 석기, 비단, 상아 등 개성적인 소재가 이용되고 있는 이들 사리장엄에 비해, 비교적 규칙성을 띠는 한·중·일 자료들의 특징은 역시 한역본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대립은 도나(Dona,徒盧那) 바라문의 중재에 의해 수습되고 釋尊의 사리를 모셔간 각각의 지역에는 스투파가 건립되어 공양이 행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리신앙과 장엄의 유래이다.

Ⅲ. 백제와 고대 일본의 사리장엄구

1. 백제의 사리장엄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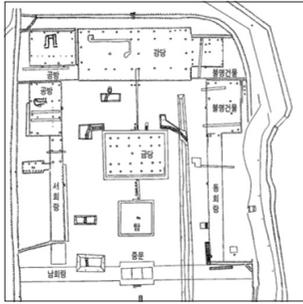
한국 고대 사리신앙의 정황을 알 수 있는 1차 자료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불교의 初傳을 전하고 있는 문헌들이나 고대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들, 그밖에 중국문화와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보면,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를 중심으로 사리신앙이 성행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백제의 사리전래와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廣弘明集』에 보이는 仁壽원년(601) 隋文帝로부터의 전래를 들 수 있다¹⁵⁾.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백제 불탑지 등으로 미루어 백제에는 보다 이른 시기부터 여러 경로를 통한 사리전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¹⁶⁾.

백제의 불탑지는 그 대부분이 백제후기 사비시대의 유구들로 立地 역시 당시의 중심도시였던 부여와 익산지역에 밀집해있다. 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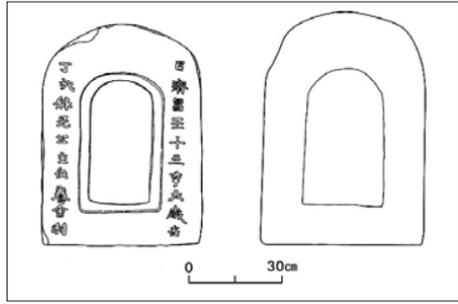
15) 「高麗百濟新羅三國使者將還 各請一舍利於本國起塔供養 詔竝許之」

『廣弘明集』第17卷「慶舍利感應表」

16) 현재까지 확인된 백제사지는 약40여곳으로 그 모두에서 불탑이 존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여러 조사성과에 따르면 백제의 사원에는 탑을 수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실제 사리공양과의 관련이 확인된 탑만해도 1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백제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활발한 사리탑 조성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도면1〉 능산리사지가람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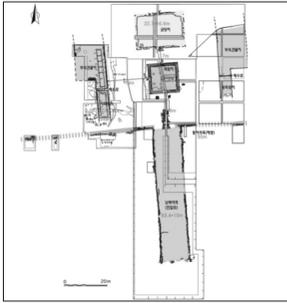


〈도면2〉 창왕명사리감

사리봉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물이 출토된 곳으로는, 부여 근교의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 익산지역의 미륵사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유적지에서 발굴한 사리장엄구들은 동시대 백제 유적뿐 아니라, 신라,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까지도 엿볼 수 있게 한다. 먼저 능산리절의 사리장엄은, 목탑지 心礎 상면에서 발견된 ‘창왕명사리감’에 위덕왕 13년(567)에 건립되었음을 기록한 緣起銘文이 남아있어 자료뿐 아니라 사료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도면2). 하지만, 그 외의 유물들은 폐사 후 입은 도굴 등의 피해로 교란이 심하여 공양품이라 여겨지는 일부 유물들을 통해 당시의 공예수준을 짐작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¹⁷⁾. 또 사리용기 역시 사리감만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왕흥사 목탑지의 사리구는(도면4), 心礎舍利孔에서 출토된 ‘청동 사리합’의 銘文을 통해 창건목적이나 능산리절과의 전후관

17) 능산리절은 능산리고분군의 추선사찰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까닭에, 백제멸망 직후 廢寺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도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되고 있다(국립부여박물관(2010)).



〈도면3〉 왕홍사 가람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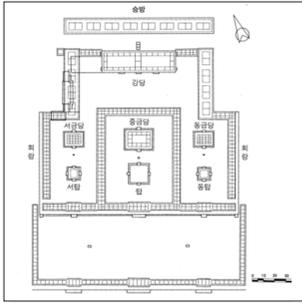


〈도면4〉 왕홍사출토 사리용기

계는 물론, 당시의 내외정세 까지도 짐작하게 한다¹⁸⁾. 또한 공양품으로 쓰여진 藏身·裝飾品 중에는 무령왕릉의 ‘嵌金炭木製扁玉’처럼 탄목을 이용한 ‘炭木金具’나 능산리사지 출토품과 유사한 ‘金帽形裝飾’ ‘金多面體裝飾’ 등과 같이, 동시대 주변유적과의 관련을 명확히 하는 자료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공양품에 보이는 ‘금판’ ‘은판’ 등의 財貨物들은 ‘상평오수전’ ‘오수전’과 함께 진단구에 사용되었음이 농후하다. 비슷한 예로는 신라와 가야지역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은제연관’, 경주 분황사에서 출토된 ‘상평오수전’, 무령왕릉에서 買地의 의미로 부장되었던 ‘오수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사리공양품과 고분부장품의 유사성을 짐작하게 하는 한편, 중국 남·북조와의 대외교류까지도 엿볼 수 있게 한다.¹⁹⁾

끝으로 무왕代의 건립으로 잘 알려진 미륵사지 서탑의 사리장엄을

18) 사리함의 緣起銘文은, 왕홍사가 능산리절 창건으로부터 10년 뒤인 위덕왕 24년에 조영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처럼 위덕왕 중·후반기 대규모 토목공사가 잇달아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부왕인 성왕의 전사로 인한 집권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도면5〉 미륵사 가람배치



〈도면6〉 미륵사서탑 心柱舍利孔

살펴보면, 사리용기의 구조는 외부 사리용기에 ‘금동제사리호’를 이용하고, 그 안에 ‘금제사리호’와 ‘유리병’을 중첩하여 사리를 안치하고 있다. 각 용기들의 器形은, 사리를 직접 안치한 最內部 사리용기로 여겨지는 유리병의 경우 파손으로 형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보존상태가 양호한 금동제사리호와 금제사리호는 서로 크기와 재질을 제외한 구조와 모양 등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 되었다. 더욱이 이들 사리호는 왕흥사에서 출토된 ‘은제사리호’와도 유사성이 지적되어, 백제후기 사리용기의 정형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⁰⁾. 그밖에, 구슬류나 금제환 등의 유물에서도 무령왕릉이나 왕흥사 출토품과의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별도의 銘板을 사용하여 건립연기를 기

19) 오수전은 漢 武帝5년(BC118)부터 唐 開元通寶 발행(621) 이전까지 중국의 표준화폐로 각지에서 주조·유통되었다. 특히 백제 유적지 출토품들은 梁 武帝 당시의 것과 같은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한편, 동시대 유적에서 북위의 상평오수전이 확인되고 있는 점은, 백제가 남조뿐 아니라 북조와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예라 할 수 있다.

20) 이귀영·박대남 2010「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의 의의」『백제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국립문화재연구소

록하고 있는 ‘사리봉영기’나 공양품들을 6개의 ‘靑銅圓盒’에 나누어 넣고 心柱舍利孔에 장엄구 전체를 4단으로 포개어 올린 매납법 등은, 이전의 사리장엄에서는 볼 수 없는 정교하고 세련된 사리안치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군수리사지, 금강사지, 부소산사지, 정림사지(이상 부여 소재), 제석사지(익산소재) 등에서 탑 하부의 心礎와 舍利孔을 비롯 사리공양품이라 여겨지는 유물들이 발견되어, 조사 및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일본 고대사원의 관련유물

『日本書紀』에 의하면, 일본의 불교는 欽明13년(552) 백제로부터 석가불금동상, 경전, 幡蓋 등이 전래되면서 시작되었다²¹⁾. 사리봉안의 始原과 관련한 기록으로는, ‘渡來人 출신 司馬達 등이 蘇我馬子에게 사리를 바쳐 飛鳥大野丘의 北塔에 안치했다²²⁾’는 기사와 ‘백제에서 승려, 寺工, 瓦博士 등과 함께 사리를 보냈다²³⁾’는 기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사리안치의 始原이라 여겨지는 ‘大野丘의 北塔’은 그 실체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내용이 많으며, 일부에서는 실존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²⁴⁾. 결국 사리가 불교의 의식을 통해 봉안된 가장 오래된 예는 推古원년(593)의 飛鳥寺 건립이라 볼 수 있다. 실제 飛鳥寺 탑지에서 확인된 사리장엄구는 建九7년

21) 『日本書紀』19欽明天皇條에 기록하는 佛教初傳. 현재는 538년설이 우세.

22) 「此時達等得 佛舍利於齊會上 以舍利獻於馬子宿禰」(敏達13년條), 「蘇我大臣馬子宿禰 起塔於大野丘北 大會設齊 卽以達等所獲舍利 藏塔柱頭」(敏達14년條)

23) 「百濟國遣使并僧惠總·令斤·惠寔等 獻佛舍利」(崇峻원년條)

(1196)의 화재로 사리용기의 재매납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心礎舍利孔 등 매납시설과 각종 공양품들은 창건 당시의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다²⁵⁾.

현재까지 일본에서 출토된 고대 사리장엄구 중에서 사리용기가 현존하는 유적은 法輪寺, 法隆寺, 崇福寺, 太田廢寺, 繩生廢寺, 山田寺(岐阜縣)등 6곳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사리용기들은 재질이나 형태에 있어 반드시 발상·전래지인 인도나 중국의 것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리용기의 구조를 포개 넣을 수 있는 찬합형(중첩식)으로 하고, 最內部 용기의 재질로 금이나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경전에 의거한 발상지로부터의 장엄법을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6곳 가운데 사리장엄이 매납 당시의 원형을 유지한 채 확인된 곳으로는 ‘崇福寺 목탑지’와 ‘法隆寺 伍重塔’이 있으며, ‘飛鳥寺 목탑지’의 경우 공양품과 心礎에 한해서 원형이 인정되고 있다. 우선 飛鳥寺에서 발굴된 사리공양품을 보면, 왕홍사나 미륵사 출토의 금·은제 ‘延板’과 같이 다른 유적과 유사한 유물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 반면, ‘掛甲(갑옷)’ ‘馬鈴’ ‘蛇行狀鉄器’ 등 일반 사원유적에서는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든 武具와 馬具들도 매납되어 있었다. 이러한 武具·馬具類는 飛鳥寺의 창건시기인 古墳時代 후기의 황혈식 석실분에 부장되는 유물들과 거의 일치하는

24) 柱頭に 사리를 안치했다고 전해지는 大野丘北塔은 『日本書紀』의 기록을 제외하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아, 대략 기둥만을 세워놓은 기념비 형태이거나 육조시대 남조를 중심으로 성행한 刹柱정도로 생각되어지나, 어느쪽이든 본격적인 불탑형식은 이르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25) 飛鳥寺 사리장엄구에 대한 확인은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58)이후, 景山(1986)등 여러 조사결과를 통해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사리장엄의 最古例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것들로²⁶⁾, 이 시기의 사리장엄과 관련한 고분 부장품 전통의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崇福寺는, 일반적인 평지가람 사원들에 비해 독특한 산중가람의 立地와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²⁷⁾. 이와 관련하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출토된 공양품의 수량이 현저히 적은 이유에는 立地의 영향에 기인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崇福寺에서 확인된 구슬류의 경우, 다른 유적의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실을 꿰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였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구슬류 전체의 수량이 20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완성품이 매납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수정, 유리, 硬玉 등 다양한 재질의 구슬들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점들은 사리공양품이 그저 하나의 물품을 매납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다시 말해 崇福寺의 사리공양품 매납은 다양한 재질의 구비를 염두에 두고 진행 되었으며, 이는 결국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칠보장엄²⁸⁾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추찰한다.

끝으로 法隆寺 사리장엄은, 좌우로 개폐되는 ‘卵形透彫容器’나 습자의 사방을 사슬로 감아 고정시킨 ‘鍍金響銅寶珠紐合子’등과 같이

26) 辻秀人2006「日本古墳時代の副葬品と飛鳥寺塔の舍利莊嚴」『歴史と文化』40 東北学院大学学術研究会

27) 崇福寺址는 1928년 발굴조사결과 堂·塔의 배치가 남북으로 3곳의 산등성이에 나뉘어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8) 일곱가지 보물로 불당·불상등을 장엄하는 것. 아미타경, 법화경, 반야경등 많은 불전에서 설하고 있으나, 칠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전별로 相違하다. 주로 金, 銀, 琉璃, 瑪瑙, 玻璃(水晶), 磲磈, 赤珠 외에도 珊瑚, 琥珀, 眞珠, 摩尼珠등이 대체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종의 귀한 물품’으로 이해된다.

독특한 사리용기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가장 안쪽에 사용된 ‘銀栓玻璃瓶’은 경주 송림사 출토품과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있다²⁹⁾. 또한 사리공양품으로는 수·당대의 것이라 생각되는 ‘禽獸葡萄鏡’이나 飛鳥寺 출토품과 유사한 ‘金延板’을 비롯하여 수많은 구슬류가 발견되었다. 특히 구슬류 중에는 구멍이 없는 것, 가공하지 않은 천연 진주,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파편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崇福寺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성된 물품보다는 칠보장엄이라는 재료의 의미를 고려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IV. 관련 자료들의 비교 및 고찰

1. 心礎와 舍利孔(표1)

心礎는 心柱를 떠받치는 장치로 탑의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백제의 목탑을 살펴보면, 6세기 중엽의 능산리절과 왕흥사에서는 직경1m 정도이던 心礎가, 7세기에 건립되는 제석사에 와서는 2m에 육박할 만큼 커져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잇는 미륵사 목탑의 경우 礎石의 유실로 인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미륵사 창건 직후에 造塔이 이루어진 황룡사탑 心礎의 직경이 4m를 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³⁰⁾, 미륵사목탑 역시 이전의 사원보다 대형화된

29)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飛鳥資料館 1989『仏舍利埋納』

30) 645년에 건립된 황룡사구층목탑은 백제의 축조기술이 이용된 건축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사결과 기단의 한 변29m, 心礎의 크기4.35×3.0m에 이르는 대규모 목탑이었음이 확인되었다(문화재관리국1984『皇龍寺遺跡發掘調査報告書』).

〈표1〉 한· 일 고대사원의 塔心礎와 舍利孔

백제								
유적명	소재지	건립연대	기단규모		心礎		舍利孔	비고
			한변길이	높이	위치(상면까지)	크기		
陵山里 寺址	충청남도 부여군	567년	10.3m (上) 11.7m (下)	1.3m (추정)	잔존기단부터 1.5m 아래	1.06×1.30m 두께 0.5m	無	心礎상면 石造舍利窟
王興寺址	충청남도 부여군	577년	12.2m		잔존기단부터 0.5m 아래	1.0×1.1m 두께 0.45m	방형 16×12cm 깊이 16cm	心礎상면남측 石蓋·舍利孔
帝釋寺址	전라북도 익산시	7세기 전반	19m (上) 21.2m (下)		지상식	1.82×1.75m 두께 0.76m	장방형 60×26cm 깊이 16cm	心礎상면중앙 舍利孔
彌勒寺址	전라북도 익산시	7세기 전반	16.8m (上) 18.6m (下)		지상식 (잔존흔)	유실	不明	前後유적으로 舍利孔추정
일본								
飛鳥寺	奈良県 高市郡	593년	12.1m	1.0m (추정)	추정기단부터 3.3m 아래	2.6×2.4m 두께 0.5m	정방형 12.1cm 깊이 12cm	心礎중앙의 방형구멍내 舍利窟室
法輪寺	奈良県 生駒郡	7세기 전후	12.4m (上) 13.2m (下)	1.0m	기단부터 2.3m 아래	1.6×1.5m 두께 0.8m	원형 직경 15cm 깊이 10cm	心礎상면중앙 舍利孔
崇福寺	滋賀県 大津市	668년 (672說)	12.1m	1.8m (추정)	잔존기단부터 1.2m 아래	1.8×1.5m 두께 0.6m	타원형 18~21cm 깊이 27cm	心礎남측면 舍利孔
山田寺	奈良県 桜井市	676년 (673說)	12.8m	1.8m	기단부터 1.0m 아래 반지하식	1.8×1.7m 두께 0.8m	원형 직경 23cm 깊이 15cm	心礎상면중앙 舍利孔
法隆寺	奈良県 生駒郡	8세기 전후	12.4m (上) 13.9m (下)	1.5m	기단부터 2.7m 아래	1.8×1.5m	원형 직경 24cm 깊이 25cm	心礎상면중앙 舍利孔
太田麁寺	大阪府 茨木市	7세기말	不明		不明	1.7×1.6m 두께 0.5m	장방형 30×20cm 깊이 15cm	心礎상면중앙 방형구멍내 石製舍利函
繩生麁寺	三重県 三重郡	8세기 전후	10.2m	0.6m (잔존)	잔존기단부터 1.5m 아래	1.8×1.6m 두께 0.8m	원형 직경 14cm 깊이 13.5cm	心礎상면중앙 舍利孔

心礎가 이용되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백제목탑 心礎의 대형화 경향은, 탑과 사원의 규모 뿐만 아니라 당시의 활발했던 사리장엄, 즉 사리신앙의 융성까지도 짐작하게 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心礎의 크기를 통한 일정한 경향은 눈에 띄지 않고 건립시기 및 규모와의 관계도 찾아보기 어렵다. 단 心礎의 형태에 있어 백제의 것들이 대부분 방형으로 가공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자연석의 상면에 心柱가 들어 설 수 있는 心柱孔만을 가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백제와 고대 일본의 塔心礎를 보면 心礎가 心柱를 지탱하고 있는 점에서는 여느 사원유적지와 다를 바 없으나, 그와 동시에 心礎에 舍利孔을 마련하여 사리를 안치하는 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³¹⁾. 이처럼 心礎에 舍利孔을 가공하는 예는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과 일본 사리안치의 큰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능산리절의 목탑지에서는 별도의 석제 사리감을 마련하여 사리를 안치하고 있으나, 그 뒤를 잇는 왕흥사 목탑에서는 心礎 상면의 남단에 방형 舍利孔을 뚫어 사리를 안치하고 있다. 또한 미륵사지를 전후하는 제석사지와 황룡사지에서도 塔心礎의 상면 중앙에 방형 舍利孔이 확인되고 있어, 미륵사지 목탑 역시 같은 사리안치법을 따르고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를 통해, 백제에서는 6세기중엽 왕흥사 이후로 心礎에 舍利孔을 마련하는 사리안치법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飛鳥·白鳳시대의 사리용기가 출토된 대부분의 유적에서 心礎舍利孔이 확인되고 있다. 그에 반해 心礎舍利孔이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는 6세기 중엽까지 心礎 밑에 塼函을 설치하여 사리를

3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한·중·일 고대사지 비교연구-목탑지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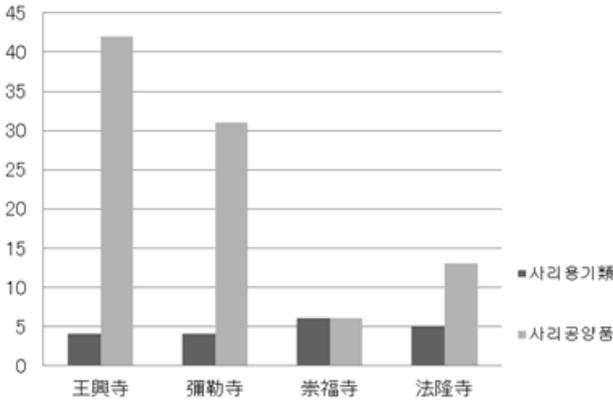
안치했으며, 이러한 博函은 수·당시대를 거치면서 대형화되어 博室이나 地宮으로 발전하였다. 백제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창왕명 사리감’의 경우, 중국 博函으로부터의 영향관계가 지적되기도 하는데³²⁾,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으로 시작된 사리감 형식이 이후 백제와 일본의 사리안치법에 이르러 心礎舍利孔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은, 중국의 博室이나 地宮과는 변천 양상을 달리하는 독자적 형태로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2. 사리용기와 매납구조

출토된 사리장엄 유물들의 내용과 수량이 각 유적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각기 다른 사정과 배경에 따라 사리장엄구가 마련되어 매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리장엄이 사리의 봉안이라는 공통된 불교적 가치와 의례를 염두에 두고 실시된 이상, 일정한 의미와 방법이 공유되고 유지 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점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사리용기와 사리공양품의 수량을 유적별로 비교하여 사리장엄구 구성에 있어서의 공통된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대상 유적으로는, 사리장엄구의 출토 및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에서는 왕흥사 목탑지와 미륵사지 서탑을, 일본에서는 崇福寺 木塔址와 法隆寺 伍重塔을 택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도면7>.

분석 결과, 사리공양품은 한국과 일본 간에 지역차가 현저했으며

32) 김연수 2008『부여 왕흥사 목탑지 출토 사리장엄구에 대하여』『부여 왕흥사지출토 사리기의 의미』국립부여박물관



〈도면7〉 사리용기와 공양품

그 중에서도 40여 품목이 넘는 왕흥사와 6품목에 그치는 崇福寺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崇福寺의 공양품이 적은 이유로는 앞에서 언급한 立地의 영향이 적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일한 전래 경로를 갖는 백제와 고대 일본 사이에 3~4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같은 불교의식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의 지역성과 사회적 상황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사리용기類의 경우, 모든 유적들이 5개 전후의 일정 수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 환경요소에 영향 받기 쉬운 사리공양품에 비하여, 사리장엄의 중심이 되는 사리와 사리용기의 매납에는 동일한 儀禮法이 적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으로, 사리용기를 보다 상세히 관찰하고자 ‘중첩방식’ ‘재질’ ‘매납상태’ ‘매납공간’ 등의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2). 조사 결과, 사리안치에는 저마다 개성이 풍부한 용기들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모든 유적들이 대략 4~5종의 중첩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표2〉 사리매납구조

유적	증첩방식	사리용기의 재질 (안쪽부터)	매납상태	매납공간 (cm)
王興寺木塔址	4중구성	금 → 은 → 동 → 돌 (心礎)	사리용기는 사리공, 공양품은 心礎 주변 산재	舍利孔 (가로·세로·깊이) 약 16×12×16
彌勒寺址西塔	4중구성	유리類 → 금 → 동 → 돌 (心柱)	사리용기와 공양품 모두 舍利孔 內 매납	舍利孔 (가로·세로·깊이) 약 25×25×27
崇福寺木塔址	5중구성 (現)	유리類 → 금 → 은 → 동 → 돌 (心礎)	사리용기와 공양품 모두 舍利孔 內 매납	舍利孔 (폭·높이·안길이) 약 21×18×27
法隆寺伍重塔	5중구성	유리類 → 금 → 은 → 동 → 동	사리용기와 공양품 모두 舍利孔 內 매납	舍利孔 (직경·깊이) 약 23×20

확인되었다. 용기의 재질에 있어서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유리, 금, 은, 동을 주로 하여 내부용기부터 귀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본 사리용기類 수량과 함께 佛典에서 말하는 '전륜성왕의 매장법'을 의식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사리의 매납 상태는 미륵사, 崇福寺, 法隆寺의 경우에는 舍利孔 안에 사리용기와 공양품이 함께 매납되었으나, 왕흥사에서는 사리용기만이 舍利孔 내에 안치되고 공양품은 그 주변에 흩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매납공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유적들의 舍利孔을 비교해 보면 다른 유적들의 舍利孔 부피가 10000cm³ 전후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왕흥사의 것은 약 3000cm³ 정도에 그치고 있다³³⁾. 이것은 왕흥사와 그 외의 유적들 사이에 사리매납

의 구조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유적들보다 협소한 왕흥사의 매납공간은 사리용기 매납만을 상정하고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왕흥사지에 선행하는 능산리사지의 ‘창왕명사리감’ 출토상황을 고려해 보면, 舍利孔의 만들새는 당초 사리(용기)의 안치만을 염두에 두었던 매납공간이 점차 공양품을 포괄하는 사리장엄구 전반을 봉안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리장엄에서의 공양품 매납이 보다 중요시 여겨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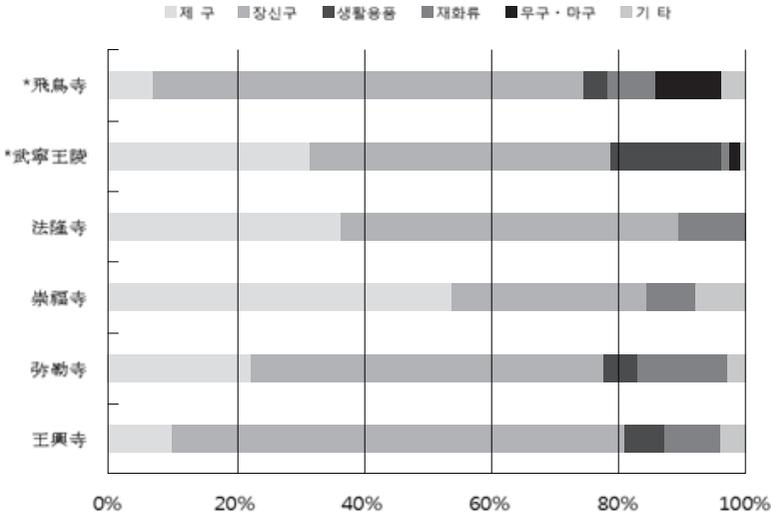
3. 사리장엄구의 구성³⁴⁾

‘사리장엄구의 구성’은 사리장엄구에 이용된 물품들의 용도와 공양품의 재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성격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자료로는 앞에서 본 王興寺, 彌勒寺, 崇福寺, 法隆寺 유적들에 더하여 武寧王陵과 飛鳥寺의 유물들도 함께 참조해 보았다(도면8)³⁵⁾. 그 결과, 사리봉안에 직접 관계하는 제구를 제외하면 사리장엄구의 용도는 장신구가 모든 유적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폐나 금·은 延板과 같은 재화류가 뒤를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유

33) 각 유적들의 매납공간은, 舍利孔이 육면체에 가까운 것과 원추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누어 부피를 구하여 보았다. 이것이 정확한 크기를 구하기에 무리임은 인지하고 있으나, 공간의 크기비교를 위한 대략의 수치를 필요로 하는 이번 연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왕흥사-약3072cm³, 미륵사-약16875cm³, 崇福寺-약10206cm³, 法隆寺-약8305.3cm³의 수치를 얻었다.

34) 지면 사정으로, 도면7~10의 기초자료인 유물분류표는 게재를 생략함.

35) 무령왕릉과 飛鳥寺의 유물들은, 고분부장품과 일본 초기사원의 장엄구 특징 등을 비교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추가하였다. 단, 무령왕릉은 유적의 성격을 달리하고, 飛鳥寺는 후대의 재매납이 이루어진 이유로, 두 유적 모두 ‘제구’의 수치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함에 주의를 요한다.



〈도면8〉 장엄구의 용도별 구성

적의 재화류들은 장신구류에 비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유적들에서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사리장엄구에 빼놓을 수 없는 물품이었다고 생각된다³⁶⁾. 장신구류와 재화류는 대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귀중한 財寶들로 이루어져 있어, 엄밀하게 사리안치만을 위해 마련된 제구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게다가 모든 유적들에서 장신구와 재화류가 차지하는 공양품의 비율이 사리장엄구 전체의 과반을 넘고 있음은, 그만큼 사리봉안 의례에 있어서도 시주자들의 발원이 담긴 공양품을 매납하는 행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왕흥사나 미륵사에서 출토된 공

36) 금·은 延板이나 오수전 등의 화폐류는 진단구로의 이용이 제기되지만, 아직 그 성격을 포함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사리봉안을 즈음하여 이용되었다는 의미에서 사리장엄 범주에 넣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양품들 중에는 銘文 등을 통해 시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유물이 보이는데³⁷⁾, 이는 창건연기에 나타나는 발원자(建立主)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사리봉안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佛典 등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이들의 참례 속에서 엄숙히 거행되는 장엄의식 풍경까지도 유추해볼 수 있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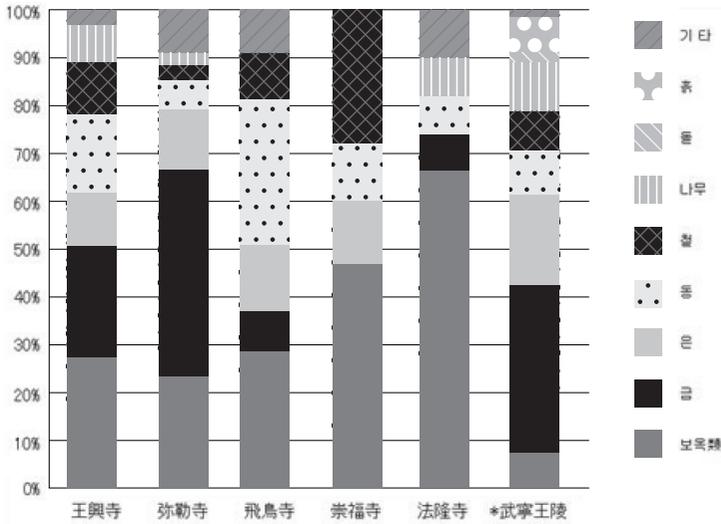
무령왕릉에서 장신구와 제구 다음으로 나타나는 생활용품의 경우, 崇福寺와 法隆寺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 밖의 왕흥사, 미륵사, 飛鳥寺에서도 미미한 양에 그치고 있다. 생활용품의 출토는 무령왕릉이나 飛鳥寺에서 확인되는 武器·馬具와 마찬가지로 고분 조성의 영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죽은 왕자의 追善을 건립목적으로 하는 왕흥사에서는 공양품으로 쓰인 장신구의 일부에 실사용 유품이 이용되고 있는데³⁹⁾, 이것은 분묘의 매장자가 실제 사용했거나 사용을 가정하고 부장된 무령왕릉의 부장품과 공통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왕흥사와 미륵사의 공양품 중에 璧類, 佩飾, 冠飾 등과 같이 신분을 나타내는 유물이 보이는 점 역시, 고분 매장풍습과의 관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공양품의 재질별 구성’은 당시의 한국과 일본에서 즐겨

37) 미륵사 서탑에서는 施主者名으로 여겨지는 銘文이 ‘金製延板’ ‘靑銅圓盒’ 등에 보이는 한편, 왕흥사 목탑에서는 銘文은 보이지 않지만 시주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鈎帶裝飾, 璧類 등이 확인되고 있다.

38) 중국의 사리장엄에 관한 기술은 『南史』 『高僧傳』 등 많은 문헌자료에서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梁書』 『廣弘明集』 『法苑珠林』 등에는 육조시대와 수나라 仁壽年間에 행하여진 불사의 모습을 상세히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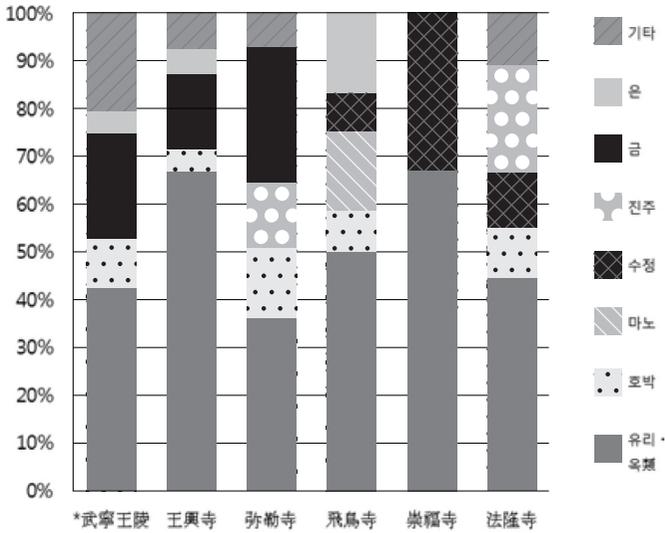
39) 李漢祥 2008 「百濟王興寺木塔址—括遺物の性格と意義」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36, 大和書房



〈도면9〉 공양품의 재질별구성

사용한 사리장엄구의 소재와 그 특징을 밝혀보려는 시도이다. 〈도면9〉는 장엄구의 대다수를 점하는 사리공양품을 재질별로 옥·유리 등의 ‘보옥類’와, ‘금’·‘은’·‘동’·‘철’의 금속류, 그밖에 ‘나무’·‘돌’·‘흙’·‘기타’로 나누어 분류를 실시한 결과이다. 〈도면10〉은 공양품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구슬류만을 선별하여 살펴봄으로써 ‘공양품의 재질별 구성’에 보여지는 특징과 경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⁴⁰⁾.

40) 여기서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 금속류 이외의 광물과 구슬류의 유리·옥 등은 보다 상세한 분류를 하지 못하고 ‘보옥類’나 ‘유리·옥類’ 정도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까닭에는 문헌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아직 정식 성과보고를 접할 수 없는 유적현황 등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스스로의 전문성 부족이 큰 원인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삼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생각이다.



〈도면10〉 구슬류의 재질별구성

특히 이 두 가지 분류에는 창건 당시의 사리공양품으로 인정되는 飛鳥寺의 자료들도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왕흥사와 미륵사에서는 공양품의 재질로 보옥類의 사용 비율이 무령왕릉보다 많지만 금을 중심으로 한 금속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은 3곳 모두 비슷하다 할 수 있다(도면9). 또한 무령왕릉의 공양품에 보이는 다채로운 재질들이 백제사원들에서 거의 확인되고 있는 것도 유사성으로 지적된다. 그에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보옥類의 비율이 늘어나는 점을 살필수 있는데, 이는 금을 비롯한 금속류의 사용이 풍부한 백제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구슬류의 재질별 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도면10). 구슬류에 이용된 재질들을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유

리·옥과 같이 주변지역에서 채집되는 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지만, 금에 한정해보면 일본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금이 백제유적에서는 유리·옥類에 다음가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백제가 금을 생산·가공 및 제품화하는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유리·옥類 이외에도 마노, 수정과 같이 백제 유적에서 볼 수 없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보다 다양한 보옥類의 산출지가 일본에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요컨대 두 지역에 사용된 사리공양품은 저마다의 지역에서 채취 및 생산된 재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각 지역에서 제작된 제품들이 공양품의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끝으로, 사리공양품의 구성에 나타나는 고대 일본의 사리매납에 대하여 지역성 이외의 사항을 지적해 보겠다. ‘공양품의 재질별 구성’에 나타나는 경향, 즉 6세기말 飛鳥寺부터 7세기 후반의 崇福寺와 8세기초 法隆寺에 걸쳐 공양품에 금속류의 이용이 줄어드는 것은, 앞서 말한 지역성 이외에도 당시의 고분 부장양식과의 관련이 지적된다. 다시 말해, 일본 고대사원의 사리공양품에 보여지는 금속류의 감소 경향은 古墳時代의 분묘에 많이 매장되던 금속제품들이 후대의 奈良·平安時代를 거치면서 재활용 등의 이유로 부장되지 않게 되는 흐름과 유사성을 띄고 있다. 이점은 시대별 고분 부장관습이 각 사원들의 사리공양품 매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V. 맺음말

제사의례로써 死者의 유해를 매장하는 시설은 불교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신앙의 대상으로 사리와 사리탑이 모셔지는 것은 釋尊의 유골을 스투파에 안치하여 공양올린 ‘舍利八分’에서 시작된다. 이후 사리신앙은 佛敎東漸과 동일한 경로를 통해 전래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엄양식은 각각의 지역성과 융합해 가지만, 중첩식 사리용기를 마련하고 탑(스투파)을 세워 공양 올리는 기본형식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거기에는 『열반경』과 같은 경전의 내용을 의식하고 지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중국을 통해 전래된 백제불교나 이를 다시 전해 받은 일본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확인된다.

근년의 발굴조사에 따르면 백제의 사리장엄은 관련 유적들의 立地가 주로 王都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왕가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왕실사원의 건립이 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목탑 중심의 ‘백제식 가람배치’나 고대 한국과 일본의 사리장엄법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心礎舍利孔’은 백제 사리신앙의 발전과 융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특히 舍利孔은 사리용기와 공양품을 매납하는 장치로, 당초에는 사리용기만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나 점차 공양품을 포함한 사리장엄구 전반을 고려하여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사리공양품의 매납이 사리안치 만큼이나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리용기와 사리공양품은 모두 사리장엄구의 범주에 속하며, 실제 발굴조사에서도 대체로 동일한 매납공간 내에 안치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각각의 성격과 의미는 달리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사리장엄의 中核이라 할 수 있는 사리용기는 다양한 器形의

사용으로 인해 생산지의 독자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안치방법이나 재질의 이용 등에서 보이듯이 佛典을 강하게 의식하고 그 내용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에 반해 귀중한 財寶를 헌납하여 칠보장엄을 이루고자 한 사리공양품은, 각각의 지역성과 전통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구성요소들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고분부장품의 영향에 대하여 덧붙이자면, 백제유적들에서는 자료들이 갖는 의미를 통해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고분과의 관련이 인정되는 飛鳥寺 사리장엄구의 구성내용을 비롯, 사리공양품의 시대별 경향에서도 당시의 사리공양품 매납에 미친 고분 부장관습의 영향을 관련 지을 수 있었다.

백제와 일본의 불교 교류사에 관해서는 ‘欽明朝의 佛敎初傳’과 ‘善信尼의 수계’ ‘飛鳥寺창건’ 등과 같이 성왕·위덕왕代의 교류 이래로 왕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이 여러 문헌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는, 백제불교가 종교와 사상을 넘어 고대 일본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實例는 일본 고대건축에 널리 채택된 ‘飛鳥寺式 기와’나 ‘와적기단’ 등과 같이 여러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밝혀져 왔다. 본 연구에서도 ‘심초사리공’이나 ‘사리장엄구의 매납구조’와 같이 두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백제불교와 고대 일본불교 간의 교류와 영향 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한편 ‘장엄구의 용도’나 ‘공양품의 재질’ 등 사리장엄구 구성에서는 각 지역의 특징이 엇갈리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불교를 포함한 문화의 교류와 영향이 반드시 일률적이고 일방적이기 보다 각각의 사회적 배경이나 지역성 등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 여겨진다.

최근 백제불교 유적에 대한 비약적 발굴성공에 힘입어 그간 미비했던 백제문화는 물론, 주변지역과의 교류·영향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향후 백제의 불교문화에 관하여 보다 활발한 조사 성과를 기대하는 한편, 사리장엄을 포함한 고대 동북아시아 불교 교류에 대해서도 보다 심화된 연구성과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國文)

- 김상현 2009, 「미륵사서탑 사리봉안기의 기본적 검토」 『대발견, 彌勒寺의 再照明』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김춘호 2010, 「백제 목탑에 관한 일고찰 - 그 사례와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55
한국사상문화학회
- 김혜정 2008, 「왕흥사지 발굴조사 성과」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의 의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신대현 2003, 『한국의 사리장엄』 해안
- 양은경 2008, 「中國 佛教寺刹의 검토를 통해 본 百濟 泗沘期 佛教寺刹의 諸問題」
『백제연구』 50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楊 泓 2008, 「中國南朝對 百濟佛教文化的影響」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의 의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주경미 2009, 「百濟 彌勒寺址 舍利莊嚴具 試論」 『역사와 경계』 73 부산경남사학회
- 2014, 「彌勒寺址石塔 舍利莊嚴具의 構成과 意義」 『백제연구』 59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국립공주박물관 2008, 『무령왕릉 기초자료집』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건축유적 발굴조사 자료집 - 사찰편』 1
- 2010,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백제폐사지 학술조사보고서 - 부여군편』
- 2009, 『王興寺址 III - 木塔址 金堂址 發掘調査 報告書』
- 2013, 『백제사찰연구』
- 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왕흥사』
- 2009, 『백제가람에 담긴 불교문화』
- 2010, 『백제 중흥을 꿈꾸다, 능산리사지』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3, 『武寧王陵 發掘調査 報告書』

(日文)

- 石田茂作 1984, 「伽藍配置」『新版仏教考古学講座』2 雄山閣
- 景山春樹 1986, 『舍利信仰』東京美術
- 河田 貞 1983, 「インド・中国・朝鮮の仏舍利荘嚴」『仏舎利の荘嚴』奈良国立博物館
- 金妍秀 2006, 「6~7世紀韓国の仏塔と舍利荘嚴 - 百濟・新羅を中心として」『歴史と文化』40 東北学院大学学術研究会
- 佐川正敏 2006, 「日本古代木塔基壇の構築技法と地下式心礎およびその東アジア的考察」『歴史と文化』40 東北学院大学学術研究会
- 鈴木靖民 2008, 「百濟王興寺の舍利容器・荘嚴具と飛鳥寺 - 飛鳥文化の源流」『東アジアの古代文化』136 大和書房
- 高田 修 1951, 「インドの佛塔と舍利安置法」『佛教藝術』11 佛教藝術学会
- 中村 元 (訳) 1984, 『ブッダ最後の旅』岩波書店
- 朴待男 2006, 「韓国三国時代における仏教寺院木塔址の考察 - 弥勒寺・皇龍寺木塔を中心として」『歴史と文化』40 東北学院大学学術研究会
- 門田誠一 2010, 「百濟・王興寺址舍利容器銘文にみえる舎利の奇端と系譜」『考古学は何を語るか - 松藤和人 編』同志社大学考古学シリーズ刊行会
- 朝日町教育委員会 1988, 『繩生庵寺跡発掘調査報告書』
- 観光資料保護財団 1972, 『法輪寺三重塔調査報告書』
- 滋賀県 1974, 「大津京址」『滋賀県史跡調査報告』10
-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 1958, 『飛鳥寺発掘調査報告』
- 2002, 『山田寺発掘調査報告』
- 法隆寺国宝保存委員会 1954, 『法隆寺五重塔秘寶の調査』

(圖面出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한·중·일 고대사지 비교연구 - 목탑지편』1
- 국립부여박물관 2010, 『백제 중흥을 꿈꾸다, 陵山里寺址』

Comparision study of Sarira Decoration in Ancient Korea and Japan:

Korea Baekje dynasty and Japan Asuka and Hakuho period

Hye-Dam (Kim, Bo Hyun) Bykkyo University, Japan

This paper aims to research on Sarira decorations of Korea anicient Baekje Dynasty. The paper included recent archaeological researches around Nungsanri, Wanghungsa and Miruksa temple site and investigated Japanese Sariras of Asuka and Hakuho period to compare those periods with Korea Baekje dynasty.

Sarira belief developed the style of the decorative arts by combining various traditional and cultural backgrounds. However, the basic structures, including several layers of caskets and stupas to keep Sariras, were maintained.

Sarira decoration in general includes the casket that contains Sarira and all other decorations related to Sarira. The paper researched that these decorations were usually found from same place but have different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The casket follows the Buddhist scripture in terms of materials and

the method it was buried. China, Japan and Baekjae especially followed the scripture translated and edited in Korea. On the other hand, other decorations vary in their components depending on local characteristics. The decorations in Baekjae included the relics of the person who had the Sarira while the decorations in Japan were influenced by their traditional funeral cultures.

